





## 국외소재문화유산 특별 공개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포틀랜드미술관의 <구운몽도 병풍>과 덴버미술관의 <백동자도 병풍>은 세일의 흐름에 따라 낡고 제 모습을 잃어 현지에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드물어 손상된 문화유산을 전통 방식으로 보존·복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 박물관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단장한 <구운몽도 병풍>과 <백동자도 병풍>이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랑받았던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을 한껏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문화유산이 국외에서도 그 빛을 발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매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from Overseas Museum Collections Hopes and Dreams Revealed Inside Restored Paintings

Korean cultural heritage items housed overseas have been helping to raise global awareness about Korea's historical and cultural excellence. The Portland Art Museum (in the US) has custody of a ten-panel folding screen mounted with a series of paintings on The *Cloud Dream of the Nine* motif, while the Denver Art Museum (also in the US) possesses a folding screen that features paintings collectively entitled *One Hundred Boys at Play*. These artworks had deteriorated over time and lost their previous visual appeal, making them difficult to display. Fortunately, the two folding screens underwent rigorous conservation work in Korea, bringing back their original appearance.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s now showing them in a special exhibition prior to thei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You now have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beauty of two sets of old Korean paintings loved in traditional times by royal family members and commoners alike. We hope they will now serve as shining examples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for foreign audiences to enjoy.



2025. 6. 25.<sup>☆</sup> ~ 7. 20.<sup>일</sup>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국립고궁박물관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백동자도 병풍 百童子圖 屏風  
One Hundred Boys at Play  
Folding Screen

조선, 19~20세기, 비단에 채색  
(각 폭) 141.5×34.5cm  
(그림) 98.0×30.4cm  
덴버미술관 Denver Art Museum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며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백<sup>百</sup>’은 ‘풍족하고 많다’는 의미이며, 장군놀이, 닭싸움, 원숭이놀이, 매화 따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하는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모습에는 아들을 낳기 바라는 소망과 관직등용, 입신출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백동자도는 조선 후기 왕실의 혼례와 궁중 연향에 두루 사용되었고, 민간에도 전해져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매화 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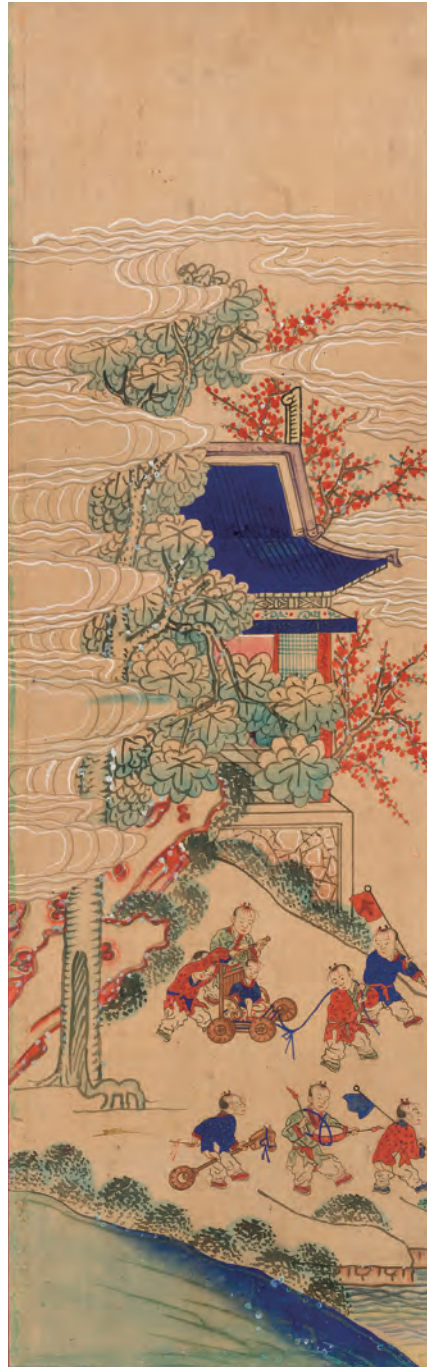
원숭이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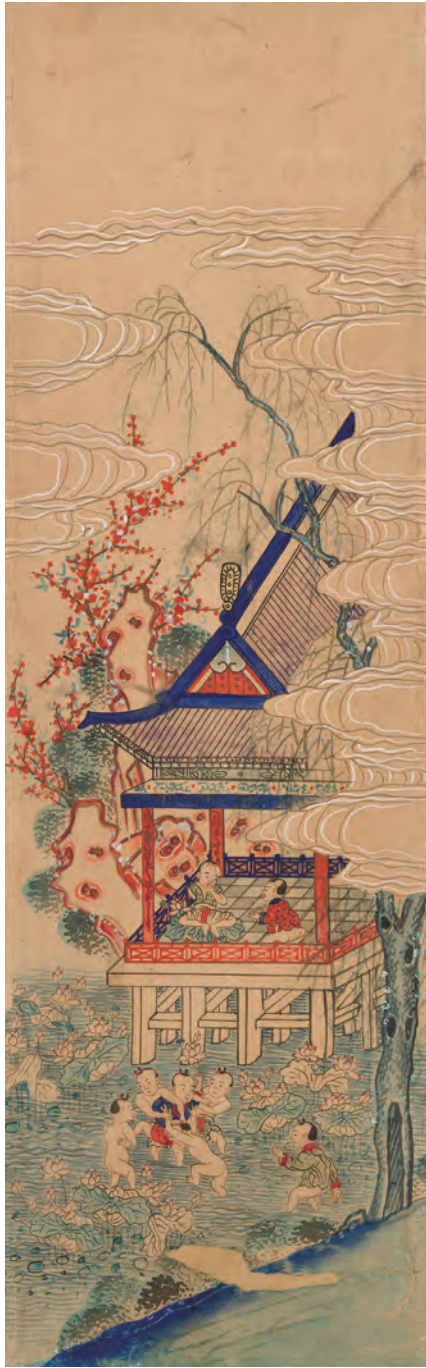
관리 행차놀이



개놀이



관리 행차놀이



연못놀이



낮잠자기, 새놀이



잠자리잡기



닭싸움



장군놀이